

보도자료

2024. 11. 14.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경영기획본부 ESG성과관리팀

한호석 팀장(061) 350-1561

배 포 : 안전경영지원단 교육홍보팀

최근수 주임(061) 350-1325

KCA-국제로타리3650지구,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맞손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이상훈, 이하 'KCA')과 국제로타리3650지구(총재 소효근)는 11월 13일 KCA 북서울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.
 -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적 자립 기반이 부족한 보호 종료 청년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, 지속 가능한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.
 - 특히,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이 경제적 지원(68.2%), 주거지원(20.2%) 등 순으로 나타난 만큼*, 양 기관의 협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실제 지원요구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* 보건복지부 「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」 결과('24.6월 발표)
- 협약의 주요내용은 ▲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상호 협력 ▲ 양 기관의 업(業)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봉사활동 공동 추진 ▲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보유 자원 교류 및 상호 협력 등이다.

- 양 기관은 국제로타리3650지구에서 추진중인 ‘3650 Happy Hand to Hand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립준비청년 6명에게 장학금 수여, 3명에게 자립준비금 지원,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시설인 만나하우스에 방문하여 밀키트 전달 및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. 또한, 향후 양 기관의 전문성 및 보유 인프라 등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KCA 이상훈 원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·주거 안정을 물론,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.”며, “앞으로 양 기관의 공동목표에 맞춰 지속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”라고 밝혔다.
- 국제로타리3650지구 소효근 총재는 “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개척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마련되었다.”며, “양 기관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- 한편, KCA는 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인턴, 채용교육, 채용가점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디볼루션(Digital+Evolution) 프로젝트를 추진하고, 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인턴 5명을 채용한 바 있다.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진로 설계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, 유관기관 등과 지속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.

참고

업무협약식 사진

